에바다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시: 2002년 1월 14일 오전 10시
장소: 느티나무 까페

<순서>
1. 참석자 소개
2. 에바다 경과 및 현 상황 설명
3. 현 상황에 즈음한 에바다 복지회 이사회 입장 발표
4. 이사회의 이후 계획 발표
5. 연대회의의 호소문 발표
6. 질의 응답

사회복지법인 에바다 복지회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문의) 에바다 이사회 사무국 남정수(016-370-1969), 연대회의 관련 박래군(016-729-5363)

<보도자료>

◎ 에바다 최근 경과와 현재의 상황

(1) 에바다 사태의 발단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소재의 에바다 농아원과 에바다 학교는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당시 이사장 최성창, 농아원장 최실자) 소속의 농아시설임. 지난 1996년 11월 27일 농아원생들이 당시 재단측의 비리와 인권유린에 항의하며 농성 시작함.

(2) 에바다 복지회 이사회의 개편

- 2001년 8월 7일, 에바다복지회 임시이사회에서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추천의 공익이사 4명(김칠준 변호사, 김용한 에바다연대회의 대표, 박경석 노들장애인 야간학교 교장, 박래군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을 새로 이사로 선임하고, 대표이사에 윤귀성 안세치과(경기도 평택시 안중 소재) 원장을 선임함. 이에 따라 농성을 야기한 최씨 일가 측 이사 4명과 에바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이사 7명으로 민주 측 이사가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게 됨.

- 이후 최씨 일가 측 이사 4인의 이사회 부정, 양봉애 전 농아원장직무대행의 신임 이사들에 대한 거부로 인해서 합법적인 이사들이 제대로 업무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3) 양봉애 전 농아원장 직무대행의 문제

- 양봉애 씨는 최성호 이사의 부인으로 지난 1998년부터 원장 직무대행과 에바다학교 행정실장직을 수행하였음. 양씨는 최씨 일가 중에 현직 시설 임원으로 남은 유일한 인물로 현재의 상황을 주도하고 있음.

- 양봉애씨는 학교 행정실장으로 교장에 대한 재정보고도 하지 않고 전횡을 일삼고 있는 상황임. 이사회는 전 이사장이었던 최성창 씨와 함께 현재의 에바다 정상화를 가로막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업무 지시 거부 외에도 농아원생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시위와 교문 앞 점거 등을 배후 지시하고 있는 단서를 잡고 있음.

(4) 최성창 전 이사장의 문제

- 최성창씨는 아무런 직위도 없으면서 에바다 학교와 농아원 등을 수시로 들락거리며 농아원생들을 충동하여 현 이사회 반대 집회 등에 내몰고 있음. 최씨는 최근 신임원장의 출근을 막는 정문봉쇄에 자신이 운영하는 농아인 교회의 교인들을 동원함. 농아인 교회 소속 교인들은 제3자로 시설에 아무런 권한을 갖지 않는 최씨의 사주에 의해 동원되고, 움직이는 것임.

(5) 학교 교장실 파손 사건

- 지난해에도 현 김지원 교장의 부임에 반대하여 교장실을 파손한 사건(5월 15일)을 비롯

하여 8월과 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서 교장실을 심각하게 파손한 바 있음. 그 외에 학교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일도 숱하게 일어났음. 지난 10월에는 심각한 교장실과 교실 유리창 파손 사건으로 장기간 휴업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음.

- 그 외에도 학교 곳곳에 윤귀성 대표이사와 이사들을 비방하는 내용과 권오일 교사를 성추행범으로 음해하는 낙서를 해놓고 있는 상황임. 또한, 비슷한 내용의 낙서를 학교 곳곳에 해놓고 있음.

- 이런 제반 폭력사건과 학교 기물 파손 사건 등에 대해서 이사회는 진상을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해 놓고 있음. 그에 따르면 심지어는 학교 직원이 나서서 원생들을 부추기고, 그들이 직접 파손을 해놓고 원생들이 한 것으로 보이게 한 점도 있음에 대한 단서를 잡고 있음.

(6) 교사들에 대한 폭행

- 김지원 교장과 손현득 교감, 권오일 교사 등은 지난 10월부터 학교 안에 출근했다가도 곧바로 쫓겨나는 상황을 겪고 있음.

- 학생들은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폭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밀쳐 내거나 하는 것은 다반사임. 심지어는 손 교감의 경우 학생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음.

- 이는 그 동안 폭력에 길들여진 일부 학생들이 행하는 행동이며, 그 뒤에는 이를 사주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함. 5년간의 사태로 인해 이제 학생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선생님에 대한 폭행도 서슴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임. 또한 일부 교사가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 교감 등에 대해 욕을 하고, 폭행을 하는 것이 모범이 되고 있는 상황임.

(7) 학교에서의 수업 분위기

- 교사들에 의하면 학교에서 수업은 이미 비정상적인 것이 당연시되는 상황이 지속됨. 특히 원생들은 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아 교사들이 농아원으로 찾아가 잠을 깨워 끌고 와야 하는 상황임. 교사들에 대해 폭행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이므로 수업시간에도 교사의 교육은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임.

- 통학시키는 학부모들은 불법, 폭력행위를 일삼는 일부 원생들의 위탁교육을 취소하여 원적지 시도로 되돌려 보내서 그들에 의해 선의의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음. 더욱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유급을 요구하기도 함.

- 이처럼 학교에서 평상시에도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양봉애전 원장 직무대행 등은 평일 수업 시간에 원생들을 수업에서 빠지게 하여 시위 등에 동원함. 또한, 근무 시간 중에 농아원과 학교의 직원들마저 시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

(8) 농아원생등의 시위와 외부인의 시설 무단 점거 상황

- 지난해 10월말 이후 최씨 일가 측 박경인 이사 등이 중심이 되어 농아원생들을 시위에 동원하고 있음. 이들은 윤귀성 대표이사의 치과병원인 안세치과와 윤 대표이사의 아파트 근처 등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음. 이들은 '성추행범 권오일을 비호하는 윤귀성은 물러가라'는 등

의 요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함.

- 최근 이사회가 변승일 농아원장을 새로이 임명하자 최성창 씨의 농아인 교회 교인들이 동원되어 학교 정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이어짐. 이들은 지난 7일 윤귀성 대표이사, 김지원 학교장, 변승일 농아원장의 시설 내 출입을 가로막는 불법행위를 저지름. 이들은 학내에 3,40명씩 상주하면서 교문봉쇄에 적극적으로 나섬. 이는 분명코 불법적으로 무단점거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표이사의 퇴거명령에도 불응하고 있음.

(9) 관련기관들의 문제

-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청은 사태의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으며, 이전의 비리의 주범이고 현재의 사태의 책임자인 최성창 씨와 대화로 해결하라고만 하고 있음. 5년간의 투쟁 끝에 이뤄낸 민주적 이사진을 예전의 최씨 일가 측 이사들과 동수로 재구성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지난 5년간의 상황이 말해 주듯이 그들의 실체를 인정하는 한 사태는 해결될 수 없고, 다시 그들이 법인을 사유화하려는 의도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될 것임.

- 평택경찰서는 학교 내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으며, 이사회의 대표이사의 불법 점거인들의 퇴거 요청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현주건조물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불법인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경기도 교육청은 교장실이 파손되는 등의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지난 10월 휴업령의 조속한 철회만을 요구, 수업만 이뤄지면 모든 게 문제될 게 없다는 안이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

(10) 이사회의 사태 해결 노력

- 이사회는 지난 8월 이후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차분히 노력해 왔음.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 원생들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 지난 11월 초에는 학생들의 무봉산 수련원에서 2박3일간의 수련회도 개최하여 그 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양봉애 전 원장 직무대행 등이 원생들의 참가를 가로막아 통학생들만으로 수련회를 치르게 됨.

- 학생들이 폭력에 방치되고 있고, 이사회의 합법적인 직무 수행이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는 문제 직원들을 법적 조치를 통해 격리, 조치하기로 함. 농아원장을 새롭게 농아인 사회에서 신망이 높은 변승일 전 농아인협회 부회장으로 선임하여 농아원생들에 대한 정상적인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현재의 불법상황에서는 원내에 진입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임.

현 상황에 대한 에바다 복지회 이사회의 입장

1.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선임된 이사들이 시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7일, 에바다복지회 이사회는 그 동안 에바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인사들 4명을 이사로 추가 선임하여 현재의 7:4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그 동안 5년간의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투쟁과 에바다를 영구히 사유화하려는 최씨 측의 자중지란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최씨일가 측 이사들 4명과 농아원을 장악하고 있는 양봉애 (최성호 이사의 부인) 전 농아원장 직무대행과 최성창 설립자 등은 현 이사회를 전면 부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시설을 개혁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못 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아원생들과 외부 농아인들을 동원한 폭력 행위와 불법 시설 점거 등을 통해 이사들과 시설장들의 출입을 막아왔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야 할 농아원생들을 시위에 동원하고, 직원들마저 시위에 내몰아서 학교와 농아원은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에바다 학교와 농아원에서 폭력과 불법이 상습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해도 민주적인 교장을 내쫓으려고 교장실을 세 번씩이나 심각하게 파손하였습니다. 밤중에 유리창을 깬 것만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교실과 학교 내에서 교장, 교감, 교사들이 학생과 교사들에 의해 폭행당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말부터는 교장, 교감과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 의해 교문밖으로 매일같이 내몰려야 했습니다. 수업 중인 학생들을 시위에 내몰아 정상 수업은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제간의 정은 찾을 길 없는 삭막한 학교로 저들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농아원장 직무대행 양봉애 씨는 현 이사회를 전면 부인하면서 업무보고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사회의 결재도 받지 않고 예산을 맘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교장의 지휘는 아예 거부하고 있습니다. 에바다 학교와 에바다 농아원은 최성창과 최실자 남매에 이어 양봉애 씨에 의해 장악되어 항상적인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7일부터는 신임 원장인 변승일 원장을 비롯한 대표이사와 이사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최성창 씨의 농아인 교회 교인들까지 동원하여 교문을 봉쇄하고 있으며, 7일과 10일 두 차례나 대표이사를 밀어 넘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의 폭력과 불법에 농아원생들과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사용할 것입니다.

3. 관계기관은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감독청인 평택시와 평택 경찰서, 경기도 교육청은 중립을 내세워 대화로 해결하라면서 뒷짐 지고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공공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는 현장 상황을 뻔히 보고 있는 그들의 이런 태도는 무엇입니까? 평택시와 경찰, 경기도 교육청의 이와 같은 무사안일적 태도는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처럼 시설을 불법 점거한 세력들을 모아내기 위해 이사회와 함께 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에바다 문제는 장애인 시설을 사유화하려는 비민주진영과 장애인 시설을 공공의 복지시설로 환원하여 제대로 된 교육과 장애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는 민주진영간의 투쟁임을 인식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폭력과 불법을 사주하는 세력들을 척결하고 장애인 시설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장악하려는 세력과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농아원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또 그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복지 프로그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심적인 모든 시민들과 더불어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5년간의 투쟁을 이어 반드시 에바다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공익시설로 탈바꿈시켜내고야 말 것입니다.

2002년 1월 14일

사회복지법인 에바다 복지회 대표이사 윤귀성

이사 우철영, 김칠준, 이찬진, 김용한, 박경석, 박래군

에바다복지회 완전 정상화를 위한 활동계획

1. 정상화의 목적

- 시설 구성원들의 화합; 그간의 사태 기간 중 깊어진 갈등과 불신의 골을 메우고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함
- 시설운영의 투명화; 재정 운영 상황을 지역 신문에 공개하여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 지역사회내 공익시설화; 법인이나 개인의 사유가 아닌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 그러기 위해 지역 대표인사들로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 전문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복지시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시설 이용자와 시설 수용인들이 가장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2. 정상화 방해요인

- 옛 비리 세력의 불법적인 저항; 전 이사장 최성창 씨와 전 농아원장 직무대행 양봉애 씨의 농아원생 및 최씨가 운영하는 농아인 교회 신도들을 앞세운 학교 무단 점거와 불법적인 정문 봉쇄, 직원과 농아원생들을 동원한 시위, 직원과 농아원생들에 의한 학교 기물 파손과 낙서 등 수업 분위기 저해 요인, 교사들에 대한 폭행 등의 패륜적인 행위 등
-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 양봉애 전 농아원장 직무대행 및 학교 행정실장은 대표이사의 업무 보고 및 지시 사항을 모두 거부하고, 재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행하고 있음.
- 관련 기관들의 무책임;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사회와 함께 이를 풀려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면서 오히려 양비론이나 흘리고 있는 입장

3. 정상화 추진계획

① 농아원내에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외부인들의 즉각적인 퇴거. 이를 위해 관리감독관청인 평택시청과 경찰 및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

② 그간의 불법행위를 자행한 직원들을 엄정히 조사하여 농아원생과 학생들 보호 차원에서 엄단하고, 외부 세력을 차단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

③ 위의 사항들을 취한 위에 농아원과 학교 업무를 정상화하고, 이를 발판으로 우리의 목적하는 바 모범적인 시설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적용할 것임.

2002년 1월 14일

에 바 다 복 지 회　대 표 이 사　윤 귀 성

호 소 문

차가운 겨울 한복판에 우리는 오늘 에바다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이 자리에 모여있습니다.
1996년 겨울이 시작될 무렵 농아원생들의 절규로 시작된 '에바다 시설비리 척결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과 투쟁이 어느새 다섯해를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에바다투쟁을 해오면서 장애인복지시설 비리가 얼마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자신들의 사유재산이고, 시설은 곧 돈이다'라는 천박한 생각이 장애인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범죄행위를 가능케한 것입니다.
비리주범을 처벌하면 그 동생이, 그 동생이 물러나면 그 아랫동생이 그것마저 안되니 그 부인까지 나서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버젓이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비리주범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알게되었습니다.
우리의 투쟁으로 만들어낸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등에서 드러났듯이 뇌물수수등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교육청의 무사안일, 일방통행식 교육행정, 사태초기 은폐축소수사로부터 시작된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 평택시장의 무책임한 양비론적 태도가 에바다문제를 5년넘게 끌고 온 주된 이유***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저들이 퍼뜨리는 '공대위가 농아원을 집어 삼키려 한다'는 밑도 끝도 없는 유언비어는 차라리 무시할 수 있었지만 '최씨일가의 노력도 인정해야 한다. 그들의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는 식의 관계기관의 말을 들을 때 참으로 분노가 치솟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악조건을 물리치고 에바다 민주화와 정상화를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비리세력의 소굴이었던 이사진을 민주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자신의 양심과 인격과 명예를 걸고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활동해온 분들이 이사진의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바다농아원장님과 에바다학교 교장선생님도 원생과 학생들을 위해 일하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리세력이 학생들을 선동하기위해 날조한 말처럼 에바다복지회와 농아원을 집어삼킬 능력도 권한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에바다복지회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최씨일가의 소유물이 아니며, 몇몇 이사의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공대위의 것도 아닙니다. 또한 지금 있는 농아원생들과 학생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천운을 타고난 우리 사회 농아인 모두와 앞으로도 있을 그들의 것이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모두를 위해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5년을 넘긴 에바다비리를 척결하고 파행운영을 종식시켜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와 입장을 밝힙니다

□ 비리세력 최씨일가는 완전 퇴진해야 합니다

농아원생을 동원한 농아원출입봉쇄, 학교장 출입봉쇄 그리고 각종 불법 폭력행위와 기물파손 등은 전적으로 그 행동으로부터 이익을 얻는자, 즉 최씨일가세력에게 그 책임과 원인이 있습니다.
비리세력의 완전척결은 이 사태 해결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입니다.

□ 법인및 시설임원들의 농아원.학교출입과 업무가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지금 농아원 출입을 가로막고 있는 원생.학생들은 소수입니다. 이들의 수와 힘이 커서 못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조기에 정상화 시키기 위해 시설과 법인의 대표들이 농아원. 학교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평택시청과 평택경찰서는 양비론을 버리고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 불법행동에 가담하는 직원들은 본연의 직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지금 에바다복지회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비리세력을 추종하면서 경거망동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에바다는 과거처럼 도둑들의 소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장단에 발맞추다 돌아오는 것은 사회적 지탄과 비난 그리고 징계일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양심적인 모든 시민.사회활동세력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비리세력의 저항과 반발은 있기 마련이고 때로는 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에바다가 가능했듯이 우리 모두의 힘으로 반드시 그 매듭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사회공동체, 장애.비장애공동체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 **'에바다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는 에바다복지회 민주적 이사진과 시설대표들이 추진하는 정상화조치와 노력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2002년 1월 14일

에바다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